

장자(莊子)의 사상을 통한 장노년층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 탐색

임흥남¹, 윤정진^{2*}, 손연주³

¹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²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³동명대학교 미래교육·창의연구소 초빙교수

Exploring the Direction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the Thoughts of Chuang-tzu(莊子)

Hong-nam Im¹, Jeong-jin Youn^{2*}, Yeon-Ju Son³

¹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won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ongmyung University

³Visiting Professor, Dept. of Future Education·Creativity Institute, Tongmyung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현대사회의 장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대안적 방향을 장자(莊子)의 사상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장자의 사상은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넘나드는 디지털 현상에 대해 존재(생명)의 변용이 사회적 맥락과 얽혀있음을 제시하며 늘 생성하는 존재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이에 장자의 사상을 통해 장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첫째, 구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로서의 장노년층을 새롭게 보는 관점 제시. 둘째, 디지털 사회에 대한 적응 유도가 아닌 장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문화 조성. 셋째,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문학적 관점 제시. 넷째, 디지털 아바타의 멀티 페르소나를 이해하는 인문학적 관점 고려. 다섯째, 삶의 맥락 내에 있는 디지털 기술에 다가가는 인문학적 관점 제시이다. 본 연구는 장노년층의 생물학적 노화라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들의 디지털 사회로의 유입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리터러시 교육, 장노년층, 장자(莊子),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교육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explore alternative directions for digital literacy educ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the ideas of Chuang-tzu. In this way, we can explore the direction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the thoughts of Chuang-tzu. The contents are, first, presenting a new perspective on the elderly as a future generation rather than an old generation. Second, creating a digital culture for the elderly rather than inducing adaptation to the digital society. Third, presenting a humanistic perspective that crosses the boundaries between online and offline. Fourth, considering a humanistic perspective that understands the multi-persona of digital avatars. Fifth, presenting a humanistic perspective that approaches digital technology within the context of lif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the direction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from a humanities perspective as a way to support the transition and life of elderly people into the digital society.

Key Words : Literacy education, Elderly people, Chuang-tzu(莊子), Digital literacy, Future education

1. 서론

대한민국의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키워드 중 디지털 사회로의 전이와 고령화 사회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이 두 키워드는 우리나라의 현주소가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공존하는 사회현상이지만, 두 키워드만 두고 본다면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디지털 사회라는 신기술과 장노년층이라는 구세대가 각각 그들을 대표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두 키워드의 이질감만큼이나 장노년층에게 디지털 기술은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키오스크 등 일상생활에서도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장노년층이 급변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게 한다. 특히 디지털화로 인한 어려움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의 어려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디지털 정보격차는 사회적 불균형뿐 아니라 노년층의 생존과 연결되며, 나아가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도 직결된다[1].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장노년층이 디지털화로 인한 어려움에 놓여있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드러낸다. 이에 장노년층의 디지털 사회로의 유입을 촉진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 서울시청은 '디지털이음단'을 운영하여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였다[2].

그러나 현재의 장노년층의 디지털 유입을 위한 지원을 살펴본다면, 장노년층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필요한 접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활용할 소수에 한정된다는 제한점이 생긴다. 이미 이에 관심을 가지는 장노년층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숙지할 수 있는 반면, 디지털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노년층은 어려움을 느끼며 '나와 상관 없는 것', '모르는 것'으로 외면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일부가 아닌 보편적인 장노년층 모두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장노년층이 모두 디지털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사회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필요한 디지털 지식과 기술을 선택하여 습득하는 것이 장노년층의 디지털 사회로의 유입에 안정적인 적응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으로는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이 진행된다. 그 내용으로는 디지털 역량(기본적 사용 능력), 디지털 활용(소셜 네트워크, 정보 공유, 사회참여, 정보 생산)이 포함되어 있다[3]. 이는 디지털을 활용할 때 필요한 소양이 주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장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앞서 디지털을 이해하기 위한 '디지털' 및 '디지털화'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술적 차원의 디지털 배우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를 읽어내는 안목을 기르며, '디지털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적 접근으로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의 디지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여러 학자가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장노년층이 이해하기 쉬우며 디지털 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학자로 장자(莊子)가 있다. 장자는 우화로 되어 있어 쉽고 재미있게 독자에게 이해될 뿐 아니라 장노년층이 기존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장자가 디지털 사회에 시사점을 준다는 선행연구[4]들이 이미 이루어진 바, 장자를 통한 디지털 사회에 대한 이해는 시도 가능한 접근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자의 사상을 통해 장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을 탐색해보고 함의점을 찾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장자의 사상이 장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에 제안하는 바는 무엇인가?

2. 장자(莊子)의 사상

본 장에서는 장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에 앞서, 장자의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자의 사상은 장자가 직접 썼다고 알려진 『장자』 「내편內篇」과 후학들에 의해 저술된 「외편外篇」, 「잡편雜篇」을 중심으로[5] 고찰해보고자 한다.

2.1 기(氣)의 운행: 생명을 보는 관점

“삶이란 죽음의 무리이며, 죽음이란 삶의 시작인 것이다. 누가 법도를 다스리고 있는지 아는가? 사람의 삶이란 기운이 모인 것이다. 기운이 모여 태어나게 되고 기

운이 흘러지면 죽는 것이다. 만약 죽음과 삶은 같은 무리로 본다면 우리에게 또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인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신기하다 하고, 그들에게 추하게 보이는 것을 고약하고 추하다고 한다. 그러나 고약하고 추한 것은 다시 변화하여 신기한 것이 되고, 신기한 것은 다시 변화하여 고약하고 추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는 한 가지 기운으로 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인은 그러므로 이 하나를 귀히 여긴다.- 『장자』 지복유[6]¹⁾

장자는 생명이 기(氣)의 운행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존재라고 본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며 계속 변하는데 이는 기가 주변의 다른 생명과 얽혀 영향을 받으며 변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장자에게 생명은 성장하거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상호작용하며 계속 변화를 지속해가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8].

2.2 혼돈 이야기: 생명이 살아가는 조건

남해의 제왕을 숙이라 하고, 북해의 제왕을 흠이라 하고, 중앙의 제왕을 혼돈이라 한다. 숙과 흠이 혼돈의 땅에서 만나게 되었다. 혼돈이 이들을 매우 잘 대접하여 숙과 흠은 혼돈의 은덕을 갚을 방법을 의논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일곱 개의 구멍을 가지고 보고 듣고 먹고 숨 쉬고 있는데, 혼돈만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소. 그에게도 구멍을 뚫어 줍시다.” 그리고는 혼돈의 몸에 하루에 한 구멍씩 뚫어 나갔는데, 칠 일 만에 혼돈은 죽고 말았다.- 『장자』 응제왕[7]²⁾

장자에는 구멍이 없는 혼돈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를 사람들이 자신들과 동일하게 구멍을 뚫자 죽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각기 다른 존재에게 필요한 환경과 조건이 다름을 시사한다. 본 내용은 각 존재의 차이를 존중해주는 것이 그 생명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9].

1) 『莊子』外篇. 知北遊 : 生也死之徒, 死也生之始, 孰知其紀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 若死生爲徒, 吾又何患. 故萬物一也. 是其所美者爲神奇, 其所惡者爲臭腐. 臭腐復化爲神奇, 神奇復化爲臭腐. 故曰. 通天下一氣耳. 聖人故貴一.

2) 『莊子』內篇. 應帝王 : 儻與忽, 時相與遇於渾沌之地. 渾沌待之甚善, 與忽謀報渾沌之德. 曰, 人皆有七竅, 以視聽食息. 此獨無有, 嘗試鑿之. 日鑿一竅, 七日而渾沌死.

2.3 곤과 봉 이야기: 생명이 몸 담고 있는 공간

북녘 검푸른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을 곤鯀이라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 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변신을 해서 새가 되니 그 이름을 봉鵬이라고 한다.- 『장자』 소요유[7]³⁾

장자의 본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늘 변화하며 우리는 그 변화에 맞추어 살아가게 됨을 보여준다. 이때 우리가 적응하며 변화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장자는 곤과 봉처럼 우리 내면에 이미 양행(兩行)하는 특성이 있어 상황에 따라 무엇으로도 변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0]. 이러한 장자의 사상은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넘나들 때 다양한 변이가능함을 시사한다.

2.4 장주지몽 이야기: 생명의 변용

옛날에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 펠릭펠릭 가볍게 날아다니는 나비였는데 스스로 즐겁고 뜻에 만족스러웠는지라 자기가 장주인 것을 알지 못했다. 얼마 있다가 화들짝 깨어 보니 갑자기 장주였다. 알 수 없구나. 장주의 꿈에 나비가 된 것인가. 나비의 꿈에 장주가 된 것인가. 장주와 나비는 분명한 구별이 있을 테지만 이처럼 장주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장주가 되는 것, 이것을 물화(物化)라고 한다.- 『장자』 제물론[7]⁴⁾

장주지몽은 장자가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장자가 된 것인지 모르지만 물화가 되어감을 제시한다. 이는 곧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중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4].

2.5 무용지용 이야기: 생명을 위해 필요한 지식

장석이 토신묘의 참나무를 보고 “쓸데없는 나무다. …재목이 될 만한 나무가 아니다. 쓸 만한 곳이 없어 오래 살고 있다.” 장석이 집으로 돌아온 뒤 토신묘의 참나무

3) 『莊子』內篇. 逍遙遊 : 北冥有魚, 其名為鯀. 鯀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為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

4) 『莊子』內篇. 齊物論 : 昔者莊周夢爲胡蝶, 栩栩然胡蝶也, 自喻適志與. 不知周也. 俄然覺, 則蘧蘧然周也. 不知周之夢爲胡蝶與, 胡蝶之夢爲周與. 周與胡蝶, 則必有分矣. 此之謂物化.

가 꿈에 나타나 말했다. “그대는 나를 어디에다 전주려는가? 나를 좋은 재목에 전주려는가?...이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괴롭히는 것들이다. 타고난 목숨대로 끝까지 살지 못하고 중간에 일찍 죽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쓸 곳이 없기를 바라 온 지 오래 되었다. ...이 재야 뜻대로 되어 쓰일 곳 없는 것이 나의 큰 쓰임이 된 것이다. ...또한 그대와 나는 모두 같은 물건이다. 어찌 그대는 나를 판 물건으로 보는가? 거의 죽어 가는 쓸모 없는 사람이 어찌 쓸데없는 나무를 알 수 있겠는가?”- 『장자』 인간세(65)

장자는 쓸모가 없어 아무도 찾지 않은 큰 나무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쓸모를 행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지식도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지식일 수 있으므로 쓸모의 가치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11]. 이를 통해 지식은 상대적인데, 필요한 지식은 결국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지식이며 절대적인 지식은 없음을 엿보게 한다.

3. 장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장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3.1 구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로서 장노년층을 새롭게 보는 제안

장자가 생명을 거의 운행에 따라 계속 변해가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장노년층을 늙어가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부터 계속 변해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로 이해하게 한다. 장노년층을 대표하는 구세대라는 표현은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상에 초점을 둔 접근에 가깝다. 생명 그 자체만을 본다면 사람은 계속 변화하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이로 볼 때, 장노년층은 미래의 시간을 먼저 살고 있는 미래세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미래사회(디지털 사회)로 함께

가는 미래세대의 장노년층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함의한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장노년층도 함께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3.2 디지털 사회에 대한 적응 유도가 아닌 장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문화 조성

장자의 혼돈 이야기는 존재의 차이를 인정해주어야 할 당위와 함께 누군가에게 좋은 환경은 상대적임을 함의한다. 디지털 사회는 편리하지만, 장노년층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디지털화는 불편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장노년층을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맞는 디지털 문화를 조성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장노년층 개인이 현재 놓인 상황에 따라 그 효과성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제시한 선행연구와도 상통한다[12].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기할 장노년층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장노년층 역시 이에 대한 필요와 관점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3.3 장자의 사상으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문학적 관점 소개

장자는 자신이 품 담고 있는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넘나들 때 다양하게 변화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온-오프라인 공간의 경계를 허물며 모두가 하나의 공간으로 이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사회에서 온-오프라인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장노년층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ATM이 일례이다. 인식하지 못할 뿐, 장노년층은 디지털이라는 공간에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이 이미 넘어선 경계에 발을 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장노년층에게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며 이미 우리 일상에 혼재에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그를 통해 온-오프라인 공간이 이어져 있음을 인식하는 안목을 길러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4 장자의 사상으로 디지털 아바타의 멀티 페르소나를 이해하는 인문학적 관점 소개

장자의 사상이 멀티 페르소나를 이해하는 관점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4]. 디지털 내에서는 디지털 아바타의 활용이나 익명성이 특징인데, 장노년층은 이에 대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온-오프라인의 넘나들음에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멀티 페르소나가 생성될

5) 『莊子』內篇. 人間世 : 曰, 已矣, 勿言之矣. 散木也. 以爲舟, 則沈. 以爲棺槨, 則速腐. 以. 僞器, 則速毀. 以爲門戶, 則液樞. 以爲柱, 則蠹. 是不村之木也. 無. 所可用, 故能若是之壽. 匠石歸, 櫟社見夢曰, 汝將惡乎比予哉. 若將比予於文木邪. 未祖. 梨橘柚果蓏之屬, 實熟則剝, 剝則辱. 大枝折, 小枝泄. 此以其能苦. 其生者也. 故不終其天年, 而中道夭. 自培擊於世俗者也. 物莫不若是. 且予求無所可用, 久矣. 幾死, 乃今得之, 爲予大用. 使予也而有用, 得有此大也邪? 且也. 若與予也皆物也. 奈何哉, 其相物也. 而幾死之. 散人. 又惡知散木.

수 있으며, 그것을 향유 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장자의 사상은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3.5 장자의 사상에 기반하여 삶의 맥락 내에 있는 디지털 기술에 다가가는 인문학적 관점 소개

장자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로 볼 때, 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기술과 지식이 모두가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이 아님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노년층이 디지털 기술을 모른다고 하여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문화 조성의 관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맥락이 이미 디지털화라면, 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술은 그들의 삶을 위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장자의 사상은 자신의 맥락에 맞게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것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장노년층이 느끼게 하며 단순히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삶의 관점에서 재속고해보게 할 것이라 생각된다.

4. 결론

우리 사회는 장노년층을 구세대로 소외시켜왔으며, 이제 정보 소외계층으로 이어지고 있다[13]. 그러나 장자의 사상으로 다시 본 바, 장노년층은 이전 시대부터 현재까지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자, 현대 기술의 시초를 개발한 주역이다. 정보도 기술도 부족하던 시기에 발전을 이끌었던 그들의 역량은 현대사회에서 편리함을 도모한 일상의 디지털 기술을 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만, 그들이 가지는 어려움은 생물학적 변화로 인한 한계인데, 이에 대한 현대사회의 배려와 기술의 고려가 부족하였음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급변하는 환경은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현재 장노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미래세대의 장노년층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이는 현시대 현 청년층의 미래다. 이로 본다면, 단순히 장노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가지는 문제를 역량 부족이나 세대 차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다루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이자 디지털 사회의 웰에이징을 디지털에 이징으로 정의하는 흐름도 있다. 디지털에이징은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를 통해 신중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14]. 이로 볼 때, 앞으로의 장노년층의 삶의 질이 디지털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장노년층의 디지털 사회로의 건강한 유입은 그들 스스로의 인식 변화와 주체적인 태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장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선행 강의로서 기술적인 부분 이전에 본 내용들을 소개해준다면, 관련 인식을 개선하고 안목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장노년층의 삶과 사회의 현상들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기술 역량을 갖추는 것에 멈추지 않고,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성을 발견하고 구축하면서 디지털 환경 속 장노년층의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15].

본 연구는 장노년층에 대한 이해에 바탕하여 디지털 사회로의 유입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연구 및 실제 사례 등이 부족하였던 인문학적 접근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D.W.Min. "Psychological approach to alleviating the digital information gap among older consumer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emotional choice theor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3, pp.133-138, 2020.
- [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elp seniors escape from digital illiteracy!... Seoul City, Recruiting 'Digital Joint Group'". 2023-03-02,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0406>
- [3] J.A.Oh and J.W.Yu. "The impact of digital literacy in the elderl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Public Management*, Vol.32, No.3, pp.319-344, 2018
- [4] H.N.Im, "In the era of the metaverse,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children's multiple identities: Focusing on Zhuangzi's concept of transformation". *Education and Culture*, Vol.6, No.1, pp.130-148, 2024.
- [5] B.J.An. and H.G.Jeon. *Chuang-tzu's translation 1*. Seoul: Traditional Culture Research Association, 2001.
- [6] 莊周, *Chuang-tzu*. Kim Hak-ju(trans.), Gyeonggi: Yeonam Publishing, 2010.
- [7] H.G.Jeon, *Reading Zhuangzi in an Age of Chaos*, Gyeonggi: Dongnyok, 2015.
- [8] H.N.Im, "Children's Knowing through the Wu(無) of

『Chuang-tzu』 Ph.D.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2020.

- [9] B.H.Kim. "The nature of 'tolerance' in Zhuangzi's thought and its application to moral education" *Educational Philosophy*, Vol.43, pp.37-66, 2011.
- [10] K.S.Kim, *The generative theory of Taoism*. Seoul: Munsa Cheol. 2015.
- [11] D.S.Kim "A modern educational interpretation of <Zhuangzi>".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Vol.17, No.3, pp.61-84, 2007.
- [12] Y.D.Kim, Y.H.Jo and Y.G.Seo,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education for the elderly: Focusing on digital capabilities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55, No.1, pp.229-259, 2017.
- [13] H.S.Lee, H.S.Lee and J.A.Choi, "Redifining Digital Poverty : A Study on Target Changes of the Digital Divide Survey for Disabilities, Low-Income and Eld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3, pp.1-12, 2016.
- [14] D.H.Han, "A Study of Digital Aging Practices and Intentions to Engage in Active Ag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Next 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Society*, Vol.8, No.1, pp.143-159, 2024.
- [15] J.W.Kang, "A study on the paradigm shift in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for the elderly: A study on the discursiv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 process of the digital environment for the elderly in media education policies and media reports for the elderly" *Korean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Association 2021 Spring Regular Academic Conference*, pp.144-154, 2021

임 흥 남(Hong-Nam Im) [정회원]



- 2012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교육학석사)
- 2020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교육학박사)
- 2020년 9월 ~ 2021년 8월 : 동명대학교 창의인성연구소 전임연구원

■ 2023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교육사상

윤 정 진(Jeong-Jin Youn)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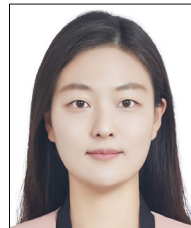
- 1997년 2월 : 고려대학교 가정학과(아동학 석사)
- 2004년 2월 : 고려대학교 가정학과(아동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미래교육·창의연구소장 (구 창의·인성연구소)

<관심분야>

교육학, 디지털큐레이션, 학제간연구

손 연 주(Yeon-Ju Son) [정회원]



- 2016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교육학석사)
- 2023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교육학박사)
- 2019년 3월 ~ 2020년 8월 : 부산대학교 BK21PLUS 연구원

■ 2023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미래교육·창의연구소 초빙교수

<관심분야>

AI, 디지털교육, 사회융합